

주간 경제지표 리포트 26.09.09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지난주는 미국 고용이 예상을 세 배 가까이 웃돌며 연준 추가 인상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동안, 한국 증시만 홀로 급등해 세계 증시가 따로 노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진 한 주였다.

지난주 한눈에

8월 미국 비농업고용(NFP, 새로 늘어난 일자리 수)은 16만 2천 명으로 예상(5만 6천 명)을 크게 웃돌았고 6·7월분도 5만 5천 명 상향됐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비 3.1%로 직전(3.2%)보다 둔화해 임금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힘은 약해졌지만, 고용 자체가 워낙 튼튼했던 탓에 시장은 이를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채권시장이 반영하는 9월 16일 FOMC 인상 확률은 62%까지 올라와 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KOSPI는 9월 7일 하루에만 4.6% 뛰었고, 이번 주(9/1~9/8) 누적으로도 2.6% 올랐다. 8월 소비자물가가 3.1%로 오르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명분을 재확인시켜준 가운데 반도체 수출 기대가 겹치며 주가가 밀어 올려졌는데, 정작 미국 3대 지수(S&P500·나스닥·다우)는 같은 기간 소폭 조정애 머물렀다. 원화도 이번 주 달러 대비 1.7% 강해졌다.

유럽에서는 국채 금리가 장단기 가릴 것 없이 올랐다(10년물 +6.0bp, 2년물 +7.0bp, 이번 주 기준). 다만 장단기 스프레드(금리차, 경기 기대를 가늠하는 잣대)는 1.2bp 확대에 그쳐 큰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2분기 성장률 상향(0.4%→0.6%) 소식에 대한 완만한 반응으로 읽힌다.

다음주 꼭 볼 것

9월 9일 발표되는 중국 물가가 첫 관문이다. 소비자물가(CPI) 전년비는 0.8%(이전 0.5%), 생산자물가(PPI) 전년비는 3.6%(이전 3.5%)로 개선이 전망되는데, 실제로 맞아떨어지면 앞서 확인된 중국 제조업 PMI 반등(49.2→49.8)과 함께 중국 경기 바닥론에 힘을 보탬 수 있다.

9월 10일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도 분수령이다. 시장 예상은 2.25%에서 2.5%로 25bp 인상이며, 최근 국채 금리 상승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결정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같은 날 미국 생산자물가(PPI, 전월비 0.4%·전년비 5.3% 전망)와 다음날 소비자물가(CPI, 전월비 0.4%·전년비 3.4% 전망)는 연준의 9월 인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재료다.

자금 흐름을 보면 이번 주 주식형 펀드로는 순유입 우위(유입 비중 50.6%)가 이어졌고 혼합자산에는 더 강하게 자금이 몰려(유입 비중 53.7%),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지난주 발표 지표 리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9/02	미국	공장 주문	0.6	-0.3	0.9	전월비 %	미국 공장 주문 전월비 0.9%로 예상 0.6%·이전 -0.3%를 상회, 제조업 수요 회복이 재확인됐다.
09/02	한국	소비자물가(CPI)	—	—	3.1	%	8 월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과 근원 두 지표 모두 전년동월 대비 상승폭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이어가고 있는 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왔다. [심층]
09/03	미국	무역·수출입	-90.0	-73.3	-88.6	십억\$	7 월 미국 무역적자가 886 억 달러로 전월보다 174 억 달러(24.4%) 확대됐다. 확대를 이끈 것은 수출 부진이 아니라 컴퓨터·반도체 등 정보기술 자본재 중심의 수입 물량 증가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앞선 지금 국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반영 경로를 악화시킬 재료가 아니다. [심층]
09/03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5.0	203.0	206.0	천명	8 월 29 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 만 6 천 건으로 늘면서 몇 주간 이어지던 해고 감소 흐름이 멈췄다. 다만 증가폭은 저위권 안에서의 미세한 진동 수준에 그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하는 현재 시장 국면에서 정책 판단을 흔들 만한 신호는 아니다. [심층]
09/03	미국	서비스업 PMI(ISM)	54.2	54.1	55.4	p	ISM 서비스업 55.4p 로 예상 54.2p 를 상회, 서비스업 확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해 No-Landing 서사에 부합한다.
09/03	미국	서비스업 PMI(S&P) 확정	56.8	56.8	56.5	p	S&P 서비스업 확정치 56.5p 는 예상 56.8p 를 소폭 하회했으나 확장 국면(56 선) 자체는 유지됐다.
09/03	미국	종합 PMI(S&P) 확정	56.0	56.0	56.0	p	S&P 종합 PMI 확정치 56.0p 로 예상과 정확히 부합, 서비스 주도 확장세가 그대로 확인됐다.
09/03	미국	생산성	—	—	1.4	%	2026 년 2 분기 생산성·단위노동비용 개정치는 이번 분기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임금인 아니냐 기업 마진 확대에 있음을 보여주며, 추가 금리 인상 논거 가운데 '임금발 인플레이션'이라는 축을 뚜렷이 약화시킨다. [심층]
09/03	독일	서비스업 PMI 확정	48.5	48.5	49.7	p	독일 서비스업 PMI 확정치 49.7p 로 예상 48.5p 상회했으나 여전히 50 밑, 위축 완화 수준에 머문다.
09/03	독일	종합 PMI 확정	51.0	51.0	51.8	p	독일 종합 PMI 확정치 51.8p 로 예상 51.0p 를 상회, 2 분기 GDP 상황과 같은 방향의 성장 서사다.
09/03	프랑스	서비스업 PMI 확정	48.4	48.4	48.0	p	프랑스 서비스업 PMI 확정치 48.0p 로 예상 48.4p 를 하회, 독일과 대비되는 부진이 이어진다.
09/03	유로존	생산자물가(PPI)	1.2 5.3	-0.3 4.6	1.6 5.8	전월비 % 전년비 %	유로존 7 월 생산자물가는 에너지 한 항목의 비용 충격이 되살아나며 헤드라인 지수를 끌어올렸을 뿐, 코어(에너지 제외)와 소비자물가 단계의 물가 압력은 오히려 멈춰 섰다. [심층]
09/03	중국	서비스업 PMI(Caixin)	—	50.4	51.4	p	8 월 중국 국가통계국(NBS)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 에서 49.8 로 올라 위축 국면 안에서 하락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주문이 48.5 에서 50.6 으로 임계치인 50 을 다시 넘어섰고 생산과 신규수출주문, 줄고 가격도 나란히 50 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와 저물가를 걱정하던 국면에서 하방 압력이 한 단계 떨어진 결과로 읽힌다. [심층]
09/03	일본	서비스업 PMI	—	52.3	52.5	p	일본 서비스업 PMI 52.5p 로 확장 국면 유지, BOJ 지속 인상 가이드선스와 배치되지 않는다.
09/03	일본	종합 PMI 확정	—	53.4	53.5	p	일본 종합 PMI 확정치 53.5p 로 확장세가 뚜렷, 다카타의 매파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이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9/04	미국	비농업 고용(NFP)	56.0	-23.0	162.0	전명	8월 미국 고용은 순고용 16만 2천 명 증가에 6·7월 합산 5만 5천 명 상향 수정까지 겹치며 최근 두 달간 이어졌던 노동시장 냉각 서사를 데이터 차원에서 되돌렸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은 지금 국면에서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추가 인상 논거를 뒷받침하는 재료로 읽힌다. [심층]
09/04	미국	시간당 평균임금	3.0	3.2	3.1	전년비 %	미국 시간당 평균임금 전년비 3.1%로 예상 3.0%는 상회했으나 이전 3.2%보다 둔화, 임금압력은 완만히 진정 중이다.
09/04	독일	제조업 수주	0.3 —	3.1 9.9	2.5 16.8	전월비 % 전년비 %	독일 제조업 수주 전월비 2.5%(예상 0.3%) 상회, 전년비는 16.8%(이전 9.9%)로 확대돼 순수출 개선을 뒷받침.
09/04	유로존	소매판매	0.3 1.1	-0.3 0.7	-0.6 0.6	전월비 % 전년비 %	2026년 7월 유로존 소매판매량이 전월비 -0.6%로 감소 전환했고, 부진이 필수재가 아닌 재량적 비식품 소비와 최대 경제국 독일에 집중되면서 3분기 초입 내수 회복력에 대한 경제 신호가 한 단계 짙어졌다. [심층]
09/04	일본	가계지출(가계조사)	—	—	-3.6	%	7월 일본 가계조사는 소폭 악재다. 실질 소비 감소폭이 확대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지만, 악화분의 대부분은 자동차 구입과 주택 외벽·담장 공사비라는 일회성 지출에서 나온 것이고 기조를 보여주는 계열들은 오히려 개선 방향을 가리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흔드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 [심층]
09/04	한국	경상수지	—	—	42.08	bn\$	2026년 7월 경상수지는 420.8억달러 흑자로, 전월(497.3억달러)보다 줄었지만 전년동월(119.5억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확대다. 흑자가 줄어든 원인은 수입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수출 증가세가 한 단계 꺾인 데 있으며, 원유 도입단가가 40%대 뛰어오른 만큼 비용 측 물가 압력은 그대로 살아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논거는 유지되되 그 속도에는 완만한 조정 재료가 더해졌다고 읽는다. [심층]
09/04	영국	종합 PMI	—	51.6	51.8	p	영국 종합 PMI 51.8p로 확장세 유지, 서비스 중심 경기 방어력이 확인된다.
09/07	유로존	GDP(확정)	0.4 1.0	0.4 1.0	0.6 1.2	전기비 % 전년비 %	유로존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전년동기 대비 1.2% 성장해 직전 분기의 정체(전기비 0.0%) 국면에서 뚜렷하게 확대로 돌아섰고, 직전 발표치였던 0.4%에서도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번 성장을 이끈 힘은 순수출 한 항목에 집중돼 있어, 구성만 놓고 보면 고르지 못한 반등이다. [심층]
09/07	독일	산업생산	0.1	0.2	-1.1	전월비 %	독일 산업생산 전월비 -1.1%로 예상 0.1%·이전 0.2%를 큰 폭 하회, PMI 개선과 엇갈리는 실물지표 부진이다.
09/07	일본	GDP(2차잠정)	0.4	0.3	0.4	전기비 %	일본 2026년 4~6월기 국내총생산(GDP) 2차속보는 실질 성장률을 전기 대비 +0.4%(연율 1.4%)로 1차속보(+0.3%, 연율 1.1%)보다 높여 잡았다. 그러나 이 플러스를 만든 것은 국내수요가 아니라 수입 급감이다. 같은 분기 국내수요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여전히 마이너스였고, 순수출 기여도 +0.5%포인트 가운데 4분의 3 이상인 +0.4%포인트가 수출 증가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서 나왔다. 헤드라인 숫자는 올라갔지만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는 1차속보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심층]
09/07	일본	경상수지	2869.8	-92.3	2988.9	십억엔	일본 경상수지 2988.9십억엔으로 예상 2869.8십억엔을 상회, 대외흑자 기조가 견조하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9/07	한국	GDP	— —	0.6 3.7	0.6 3.7	전기비 % 전년비 %	2026 년 2 분 기 한국 경제는 생산 증가 속도가 뚜렷이 둔화된 반면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국민소득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으며, 이 조합은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논거 자체를 꺾기보다는 인상 속도를 둘러싼 소수의견 쪽에 힘을 실어주는 성격의 결과다. [심층]
09/07	영국	주택가격(Halifax)	0.1 0.2	0.0 0.1	-0.2 -0.4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Halifax 주택가격 전년비 -0.4%(예상 0.2%)로 마이너스 전환, 전월비도 -0.2%로 하회해 냉각이 뚜렷하다.
09/08	중국	무역·수출입	119.05	112.5	119.09	십억\$	중국 수출 119.09 십억\$로 예상 119.05 십억\$에 부합, 무역지표에서 새로운 서프라이즈는 없다.
09/08	일본	임금	—	—	4.7	%	7 월 일본 매월근로통계(후생노동성)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모두 플러스로 나타나며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왔다. [심층]

다음주 발표 예정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9/09	중국	소비자물가(CPI)	0.3 0.8	-0.1 0.5	전월비 % 전년비 %	확률가중: china_cpi_trend 완만한 개선 우세, PPI 와 동반 확인 시 신뢰도 상승 · 관전포인트: CPI YoY 0.8% 컨센서스, 1.0%/0.5% 임계선 [시나리오]
09/09	중국	생산자물가(PPI)	3.6	3.5	전년비 %	확률가중: usdcny 약보합~소폭 강세 중립, china_reflation_momentum 완만한 개선 쪽 소폭 우세 (0.55 vs 0.25) · 관전포인트: PPI YY 3.7% 컨센서스, USD/CNY 7.10, China 10Y 국채 1.85% [시나리오]
09/10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5.0	206.0	전명	예상 205.0 전명(이전 206.0 전명)으로 안정권 지속 전망, 인상 국면에서도 노동시장 완충력 유지 여부를 본다.
09/10	미국	기존주택 판매	3.98	4.06	백만호	예상 3.98 백만호(이전 4.06 백만호)로 소폭 둔화 전망, 고금리 장기화가 주택수요를 계속 누르는지 확인한다.
09/10	미국	생산자물가(PPI)	0.4 5.3	0.0 4.7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4%(이전 0.0%)·전년비 5.3%(이전 4.7%) 가속 전망, CPI 선행 신호로 인상 경로를 뒷받침하는지 본다.
09/10	유로존	기준금리 결정	2.5	2.25	%	예상 2.5%(이전 2.25%)로 25bp 인상 전망, EU10Y_2Y 스티프닝 재개와 정합적인 매파 결정인지가 관건이다.
09/10	독일	소비자물가(HICP, 확정)	0.2 2.9	0.2 2.9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2%·전년비 2.9%로 이전과 동일 전망, 속보치를 그대로 확정하며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낮다.
09/10	일본	생산자물가(PPI)	0.0 7.4	0.1 7.2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0%(이전 0.1%)·전년비 7.4%(이전 7.2%)로 전년비 소폭 가속 전망, BOJ 지속인상 명분 강화 여부를 본다.
09/11	미국	소비자물가(CPI)	0.4 3.4	0.1 3.4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4%(이전 0.1%) 급가속·전년비 3.4%(이전 3.4%) 유지 전망, Fed 9월 인상 경로 정당화의 핵심 지표다.
09/11	미국	소비자심리(미시간대, 속보)	51.0	51.7	p	예상 51.0p(이전 51.7p)로 낮은 레벨 지속 전망, 추가 둔화 시 소비 모멘텀 약화 신호로 읽힌다.
09/11	영국	GDP(월간)	0.0 1.2	0.3 1.1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0%(이전 0.3%)·전년비 1.2%(이전 1.1%)로 월간 모멘텀 정체 전망이다.
09/11	영국	GDP(3개월 이동)	0.3	0.4	%	3개월 이동 예상 0.3%(이전 0.4%)로 완만한 둔화 전망, 성장세 유지 여부를 본다.
09/11	영국	제조업 생산	0.2 2.0	-0.5 0.5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2%(이전 -0.5%)·전년비 2.0%(이전 0.5%) 반등 전망, 전년비 개선폭이 주목 포인트다.
09/15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	—	34.2	p	확률가중: eur_direction 약보합~소폭 강세 (확률가중 +0.05%) · 관전포인트: Sentix 2.0 선, EUR/USD 1.08 부근 반응 [시나리오]
09/15	독일	ZEW 현재상황지수	—	-61.1	p	이전 -61.1p 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극단적 부진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방향성만 확인한다.
09/15	프랑스	소비자물가(HICP, 확정)	—	0.8	전월비 %	전월비 이전 0.8%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속보치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09/15	유로존	무역·수출입	—	1.8	십억€	이전 1.8 십억유로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흑자 규모가 EU10Y 스티프닝의 순수출 배경을 뒷받침하는지 본다.
09/15	중국	고정자산투자	-7.1	-6.7	전년비 %	전년비 예상 -7.1%(이전 -6.7%)로 감소폭 확대 전망, 내수·투자 부진이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09/15	중국	소매판매	0.8	0.6	전년비 %	전년비 예상 0.8%(이전 0.6%)로 완만한 개선 전망이나 절대 레벨은 여전히 낮다.
09/15	중국	실업률	—	5.2	%	이전 5.2%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안정권 유지 여부를 본다.
09/15	중국	산업생산	4.8	4.5	전년비 %	전년비 예상 4.8%(이전 4.5%)로 소폭 개선 전망이다.
09/15	일본	기계주주	— —	9.7 16.9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이전 9.7%·전년비 이전 16.9%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지 설비투자 모멘텀을 확인한다.
09/15	일본	무역·수출입	—	- 634.5	십억엔	이전 -634.5 십억엔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적자 축소 여부를 본다.
09/15	한국	수출 증가율	—	68.7	전년비 %	전년비 이전 68.7%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반도체발 서프라이즈 지속 여부가 KOSPI 랠리의 펀더멘털을 검증한다.
09/15	한국	수입 증가율	—	22.5	전년비 %	전년비 이전 22.5%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내수 회복 강도를 가늠하는 지표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9/15	영국	실업수당 청구자 변동	—	-11.0	천명	이전 -11.0 천명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자 감소세 지속 여부를 본다.
09/15	영국	민간 정규급여(3 개월 평균)	—	2.8	전년비 %	전년비 이전 2.8%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임금압력 고착 여부가 BOE 정책 선행에 영향을 준다.
09/15	영국	PAYE 고용자 수 변동	—	-13.0	천명	이전 -13.0 천명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 감소가 이어지는지 노동시장 냉각 신호로 본다.
09/15	영국	실업률	—	4.9	%	이전 4.9%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실업률 추가 상승 여부를 주목한다.
09/16	미국	기준금리 결정	—	3.625	%	이전 3.625%(3.50~3.75% 레인지)에서 FedWatch 는 62% 확률로 25bp 인상을 반영 중이다, 점도표·파월 톤이 관전 포인트다.
09/16	미국	소매판매	— —	-0.6 5.01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이전 -0.6%·전년비 이전 5.01%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월 위축 이후 반등 여부를 본다.
09/16	미국	수입물가	—	6.0	전년비 %	전년비 이전 6.0%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관세 통과효과가 계속 물가에 실리는지 확인한다.
09/16	영국	서비스 소비자물가	— —	0.6 3.4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이전 0.6%·전년비 이전 3.4%에서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서비스물가 고착 여부가 BOE 경계 지표다.

자료: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